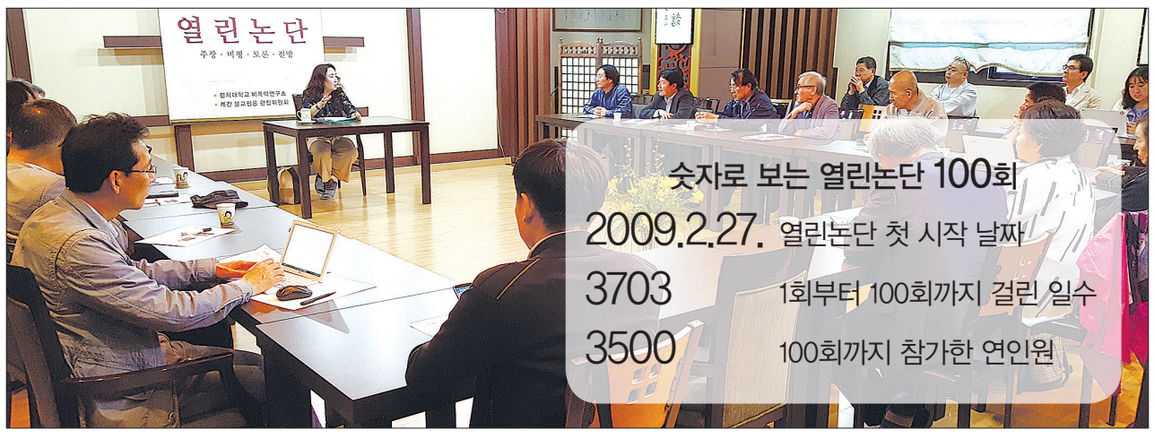
불교 실천의제, 知性 간 토론으로 이끌다

100회 맞은 불교평론 '열린논단' 의미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09년 2월 27일 논단 시작
4월 18일 100회 맞이 토론회
매회 30~40명 불교 지성모여
교리 · 포교 · 사회 등 의제 논의
불교계 토론문화 성숙에 기여

전문성과 대중성 모두 고민 중
지속 운영 목표… "변화 계속"



불교계 유일 지성 간 토론모임인 불교평론의 '열린논단' 이 100회를 맞았다.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4월 18일 열린논단 100회를 맞아 '한국불교,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5분의 발언 기회를 주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정 의제를 놓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담론을 형성해나갔던 '열린논단' 은 시작부터 토론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작은 2009년 2월 27일 김성철 동국대 교수(당시 편집위원장)의 '한국 종교의 정치종속성과 불교의 미래' 주제 발제였다. 그 후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서 매년 10회씩 세미나 형식의 논단이 진행돼 왔다. 정확하게 10년 1개월 22일, 3703일의 대장정이었다.

100회에 이르는 동안 연인원 3500여 명이 참여하며 우리시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논의 · 토론해왔다. 참여군도 다양했다. 불교학자들과 언론인, NGO 대표 등 불교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이웃종교 학자 · 성직자, 학생, 일반인들이 참석했다.

열린논단이 불교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폭 넓은 의제 선정에 있었다. 교리, 수행과 같은 불교의 기본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대사회, 윤리학, 예술, 이웃종교 등 융복합적 주제들도 상당 수 다뤄졌다.

실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들도 다수 이뤄졌다. 지승도 한국항공대 교수는 '인공지능의 불교적 이해' 를,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쟁점- 융합적 분석과 불교' 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열린논단 60회를 맞아 이뤄진 연속 기획도 눈길을 끌었다. 2015년 2, 3, 4월 세 차례에 걸쳐 '한국불교, 정말 괜찮은가' 를 주제로 논단이 진행됐다. 당시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사회적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교,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수행,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각각 발제했다.

올해로 5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에서 종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종교학 명예교수의 논단(2014년 10월 23일)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故설악 무산 대종사께서 〈불교평론〉 사옥을 마련하며 세미나실이 생겼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기획된 것이 열린논단"이라며 "〈불교평론〉이 계간이어서 시기에 맞춰 다뤄야 하는 의제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토론 모임도 필요했다"고 논단 기획 취지를 밝혔다.

'열린논단' 의 의미에 대해서 홍사성 주간은 " '열린논단' 의 주제들은 불교의 시대적 실천의제들이 많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한국불교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했던 점이 '열린논단' 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평가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현 편집위원장)도 "불교가 시대적으로 필요한 의제들을 사회와 연결해 논의의 장을 펼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불교평론〉은 '열린논단' 의 지속 운영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선정 등 변화를 고민 중이다. 99회 논단을 앞두고는 "대사회적 자비실천과 같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계획도 내보인 바 있다.

홍사성 주간은 "전문가 그룹의 이야기만 하다보면 대중성을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어떻게 결합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정착 · 안주하기보다는 계속 변화하며 논단의 지속성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ul, Temple food!" 전 세계 주한 외교대사 부인들이 사찰음식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4월 18일 서울 안국동 사찰음식체험관에서 마련한 초청행사에서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벨기에, 브라질, 이집트 등 18개국 주한 외교대사 부인들과 강난희 서울시장 부인 등은 이날 동원스님의 지도 아래 쑥 인절미와 더덕찹쌀구이, 봄동 겉절이 만들기를 체험했다. 행사에서 각국 대사 부인들은 스님의 사찰음식 조리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담고, 서로 기념촬영을 하며 한국불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윤호섭 기자**

2019행복바라미, 대장정 막 올리다

4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서
행복바라미 캠페인 선포식 개최



2019행복바라미 캠페인 선포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 왼쪽 첫번째)과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꽃나무에 물을 주는 선포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 대표 공익 캠페인 행복바라미가 4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의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9년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지역사찰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올해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500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부처님오신날 주간을 기해 다양한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4월 14일 진행된 캠페인 선포식은 고금 스님의 법고 축원을 시작으로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환영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 각계 축사와 행복바라미 선언문 낭독, 선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연화사 주지 장명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등 불교계 스님들이 대거 찾아 불자들의 자비보시행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방창덕 포교사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우성 문체부 종무실장, 유민봉 정각회 국회의원 등 불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캠페인 확산을 위한 방안"이라며 "이곳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한강을 지나 서해바다를 건너 제주까지 가듯, 원주, 공주,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복바라미의 바람을 모두 함께 일으키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불자들의 노력인 행복바라미가 7년간의 정진 결과로 많은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있다"며 "자타불이의 정신을 실천하는 불제자의 정진으로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밝아지길 기원한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계기로 나눔과 행복의 마음이 확산돼 한반도 평화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특설무대에서 꽃나무가 피어나는 축하행사와 방창덕 포교사단장의 선언문 대표낭독이 진행돼 참석한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노덕현 기자**

'세월호 5주기' 사고해역 추모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4월 13일 전남 진도 팽목항과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재' 를 봉행했다. 추모재서는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시경 · 법상 · 한수 스님 등 위원 스님들이 사고 해역까지 배를 타고 이동,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미수습자였다가 지난해 5월 수습된 단원고 조은화 · 허다윤 학생의 가족들도 함께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차명진 前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사노위는 차 前의원을 강력 비판했다.

사노위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 정부, 해경, 해수부, 회사, 선원 등의 총체적 잘못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폄훼하고 농락했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차 前의원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지 의심까지 든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면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충효 정신 고취 및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미군을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봉행

▮입재 2019년 6월 12일(음력 5월 10일) ▮회향 2019년 6월 16일(음력 5월 14일)

귀의삼보 하옵고,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피 원력이 불자님 가정에 두루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찍이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는 미래세상에 지구촌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 일체 고통을 해탈하고 무진 복락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소백산 구봉팔문 아래임을 증명하여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천태종을 중창조하셨습니다. 본 송덕사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 희생자 중 미군 전사자 33인등 1등씩 달아서 그 자손부터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려 합니다. 특히, 33인등을 만드신 것도 상월원각대조사님이시기에 이 선근공덕으로 구인사에 서양 사람도 끝없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희동참바랍니다.

● 장소 : 천태종 송탄 송덕사
● 계좌 : 기업은행 031-666-3180(송덕사)
● 문의 : 031)666-3180
● 동참비 : 미군 전사자(35,686 영가) 33인등 1등,
봉헌금 1만원, 영가당 10만원,
생전예수재 5만원, 조상 10영가 이상 100만원

33인 등이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증명하신 등입니다. 33인이 모여서 하나의 원력을 만들어 부처님께 기원드리면 그만큼 속득 소원성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송탄 송 덕 사

